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변보미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변보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의 원 : 변보미 · 감규상 · 강창석 · 곽은정 · 구점득
권순재 · 김수민 · 김우진 · 김원일 · 류성국
박영주 · 박현재 · 박찬열 · 박해정 · 백승규
성보빈 · 이무식 · 이정희 · 전태완 · 전홍표
정은미 · 지상록 · 차중현 · 하경석
황점복 의원(25명)

1. 제안 이유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활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엄격한 안전관리와 환경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시설의 입지 적정성, 환경적 영향, 장기적인 안전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당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입지의 환경적 타당성,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강화한 국가 차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마련과 민간 중심 처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환경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타당성 재검토 촉구 건의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그만큼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과 보관, 처리 과정에서는 일반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와 환경보호가 요구된다.

현재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서는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이 추진되던 부지로, 이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이 제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 초기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전면은 농촌마을과 농업지역이 넓게 분포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과 악취, 생활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미칠 영향 또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적 과제이다. 그러나 처리시설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입지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환경적 영향 및 장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해당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검토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은 법적·기술적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처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